

# '아는 군산 스탬프투어' 운영

### 시, 잼버리 영외활동으로 군산 홍보 위해... 시간여행마을·공설시장 체험 프로그램 등 구성

군산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6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영외활동으로 군산의 주요 관광명소를 체험하는 '아는 군산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외활동은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명소에 잼버리 참가자들이 방문해 시군의 특색있는 문화체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산시 영외활동은 8월 2일부터 5일, 8월 7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일 400명씩 총 3,200명 정도의 잼버리 참가자가 군산시간여행마을과 공설시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시는 관광의 재미를 더하고 참가자

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주요 방문코스를 잼버리 로드라 명명하고, 사전에 스탬프 투어북을 수령해 각 방문지점에서 스탬프 인증 후 완주 시 리워드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탬프투어로 영외활동을 운영한다.

시간여행마을의 근대역사투어 코스(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구)군산세관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진포해양테마공원(위봉함)을 관람하며 군산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시관 관람과 함께 투어 기간 중 군산시립예술훈당은 오는 2일, 8일 2회 근대역사박물관 로비에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특별 공연을 실시하며, 기간 중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주

말 상설프로그램인 근대연극공연과 전래놀이 체험, 거리문화 공연 등도 열릴 계획으로, 영외활동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공설시장의 구시가지길 체험코스는 공설시장 관람과 함께 도시숲공원에서 비석치기·떡지치기·고무신 던지기·달고나 만들기 등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근대역사투어코스과 구시가지길 체험코스를 모두 참여하며, 부안 잼버리 영지에서 군산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군산시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관람하며 군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전북 최초 긴급돌봄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메운다

##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의 길 열려

### 익산시, 전북 최초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센터 개소

익산시가 전북 최초 긴급돌봄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메운다. 사회복지법인 창해복지재단은 지난 25일 창해원(덕기동 소재)에서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및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세면·목욕 등 일상생활 돌봄과 식사 및 야간 돌봄을 24시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 대상은 만 6세 이상~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는 긴급상황별도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

15,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신청은 이용 7일 전까지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070-5089-2150) 예약을 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063-838-5200)로 접수할 수 있다.

창해복지재단 김민진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상황이나 힘이 필요할 때 장애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 철도공사 전북본부,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의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가 27일 군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이 팔을 걷어 부쳤다.

이날 협약식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산시-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산의 관광상품 등 관광자원과 철도관광상품을 상호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한국철도공사 운동회 전북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3 생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여행상품인 '백투더도전'을 비롯한 군산 관광자원과 철도 상품을 연계한 군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시는 △생활형

관광 열차 상품 공동 홍보,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시 관광자원 공유, △생활형 관광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철도 관광상품 및 군산 시티투어 연계상품 개발, △군산시 연계 철도 관광상품은 △오프라인 홍보 강화, △군산시 연계 철도 관광상품 모객 및 예약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관광 프로그램 '백투더도전'과 철도관광상품을 연계한 상품은 상호 지원으로 무척이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결합상품을 개발하여 군산관광과 철도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호우피해 대피소 운영종료... 장기구호 적극지원

### 익산시, 용안·용동·망성면 주민 일상회복 지원... 3중 방역·심리지원 등

익산시가 최고 593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 주민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한 임시대피소가 28일 운영 종료된다.

시에 따르면 망성면 여산면 동산동 등 6개 대피소에 임시거주했던 주민 57명 중 46명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 중 성북초교에 임시대피해 있는 외국인근로자 14명 중 7명도 귀가했다.

시는 주택전과 되거나 침수 돼 현재 귀가가 어려운 장기구호 주민 4명과 외국인근로자 7명 총 11명에 대해 임시주거비를 적극 지원한다.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1박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친인척집에 거주할 경우 1인당 2만 원을 살피로 지원한다.

미귀가 11명에 대해서는 책임 담당제를 지정운영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된 주택에 대해 도배, 장판 등을 신속히 주택수리를 마무리해 빠르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의료, 방역 및 심리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복귀 이후에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용안·용동·망성면 일대를 대상으로 1일 2교대 의료지원반을 운영하고 방역기동반, 특별방역반, 면 방역팀 등 3중 방역체제로 강화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심리 지원을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는 기간제근로자 방역 인력 투입으로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해충 방제 및 방역민원에 대한 즉각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피해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함께 피해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명피해를 최우선으로 막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총26개 대피소를 운영하며 사전 대피 권고와 긴급대피명령 등 646명의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친절·청결·건전축제 캠페인 활동 추진

군산시는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미소와 배려가 함께 하는 친절한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27일 군산시간여행마을과 군산공설시장 일원서 친절 캠페인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절 캠페인은 시와 전라북도관광협회, 르네상스사업단 주관으로 40여 명이 참석해 민·관 공동 캠페인을 펼쳤다. 다가오는 8월에 군산 시간여행마을과 군산 공설시장에서 영외활동 프로그램을 위해 세계의 청소년 3,200여 명이 방문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군산 야행, 8월

의 크리스마스 골목길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짬뽕페스티벌 등 하반기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를 지역주민은 물론 상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친절, 청결 구호와 함께 시작한 캠페인은 친절한 가게 스티커와 친절 안내 홍보물을 상인들에게 배부해 친절의식을 심어준다는 물론 군산이 관광객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미소 짓는 친절한 서비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축제

장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환경 축제 운영을 위해 축제장 인근 상인들의 동참을 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추진됐다.

캠페인을 접한 상인들의 반응은 "이렇게 민·관이 함께 친절 캠페인을 통해 상인들에게 각종 축제 행사를 알려주어서 정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과 미소로 맞이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미소 짓는 따뜻한 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 고스락-전주 한옥마을 연계 시티투어 인기

5000여개 장독 정원 익산 고스락과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한 시티투어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들은 백제역사, 장독정원 등 다채로운 문화가 있는 익산 여행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어 여행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한다.

전통문화 시티투어 프로그램 1호차는 오전 9시에 한옥마을에서 출발하여 아가페정원, 고스락, 미륵사지 코스로 2호차는 11시에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고스락, 교도소 세트장, 아가페정원 코스로 익산 투어가 종료되면 전주 한옥마을로 복귀한다.

사전 예약을 통해 금 토 일 주말 예약차 15명 이상이 되면 투어 버스로 이용할 수 있으며 7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서류 없이 민원 처리... 서비스 제도 개선

익산시가 서류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민원 서비스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일 개최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오늘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각종 민원서류 처리시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담당자가 전산망(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민원인 서류 구비가 필요한 사무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익산시 조례 전수조사를 거쳐 6개 일괄 개정 조례안을 추진했다.

한편 익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안부가 추진하는 미래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 구축사업 시범 기관으로 지난 6월 선정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